

# 수 학 보 고 서

성 명		학과 / 학번	
파견국가	스위스	파견학교	Haute école de gestion de Genève
파견기간	2021. 09. 20 ~	2022. 06. 25	(총 10 개월)

해외에서의 수학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입국하면 당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교류원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E-Mail: mju\_outbound@mju.ac.kr)

추후에 파견되는 학생들의 편의와 이해를 돕고 국제교류원에서도 참고할 예정이니 번거롭더라도 성실하게 작성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 1. 준비과정

-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의 준비내용  
한 달 동안, 어학원에서 영어회화를 공부했습니다.

- 파견학교 지원 과정

국제교류원의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서류 1차와 면접 2차를 준비했습니다. 면접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교 합격 후에 파견교에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파견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국가 출국 준비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등)

합격 허가서를 받은 후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급받은 비자는 3개월 용이기 때문에 스위스 OCPM(이민청)에 가서 다시 거주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거주허가증 발급을 위해 OCPM에 갈 때 반드시 이메일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스위스로 출국할 때, 터키 항공을 이용했으며 25kg 수화물을 들고 갔습니다. 나머지 짐은 EMS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받았습니다.

## 2. 파견학교

- 공항픽업 & 오리엔테이션

파견교나 버디의 공항픽업이 없었습니다.

개강 일주일 전에 교환학생 친구들과 Welcome day를 가집니다.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학교 근처 식당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시티투어를 실시합니다.

- 수업 & 학교활동

### **Consumer behavior and market research**

이 수업의 핵심은 학기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그룹 프로젝트입니다. 계획을 세워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통계 내어 분석하고 마케팅 계획을 직접 세워야 합니다. 각 팀은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셔서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International relations**

세계사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지인 친구들이 한국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다소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로 갈등에 대한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낯선 주제였지만 재미있게 팀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질문을 잘 받아 주십니다.

###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동양 문화에 대한 유럽 학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경험도 풍부해서 흥미롭게 들었던 수업입니다. 학기 말에 IGNITE라는 자신에 관해 발표하는 개인 과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말 못했던 이야기나 특별한 자신만의 경험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UN 가이드 투어, 라보지구(Lavaux) 및 와이너리 방문, 그뤼에르(Gruyères) 치즈와 까이에(Cailler) 초콜릿 공장 등의 활동을 제안해 주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학생 친구들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스키 트립과 같은 활동을 교환학생 친구들과끼리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 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시설

제네바에는 대학교 기숙사가 없습니다. 게다가 숙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서 미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파견교에서 제안한 Pinchat에서 월 680프랑으로 살았습니다. Pinchat은 학교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고 HEG 학생들도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제네바는 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기숙사가 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학생증이 있으면 할인된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피자나 샐러드도 판매합니다.

### **3. 주변 환경**

#### - 지역 정보

제네바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제또분수(Jet d'eau)입니다. 평소에도 제또분수 근처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처에 인공 해변인 Baby plage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환학생 친구들과 놀기 좋고 날씨가 따뜻하면 수영하기도 좋습니다.

국제도시인 제네바에는 국제기관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UN이나 적십자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 학교 주변 정보

학교 주변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제네바 도시 자체가 작고 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 4. 비용

#### - 등록금(해당학생만)

명지대 등록금만 지불했습니다.

#### - 기숙사 비용(학기당)

Pinchat 숙소는 월 680프랑이어서 Fall semester에는 4,080프랑, Spring semester에는 2,720프랑을 지불했습니다. 입주 시, 침구를 제공해 주고 입주청소 비용과 보증금을 포함해 2,080프랑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거주 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 저는 AXA에 가입했습니다.

#### - 추가비용(Books, Insurance, Etc.)

#### **도서비:**

책은 English Communication 과목만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험비:**

Swisscare에 가입했고 월 61프랑 지불했습니다.

#### **교통비:**

제네바 대중교통(TPG)은 연간 이용권을 구매했고 400프랑 지불했습니다.

SBB에서 Half fare travelcard를 유스로 구매했고 160프랑 지불했습니다.

Half fare card는 스위스 내 기차나 산악열차 등 대중교통을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입니다. 스위스 대중교통은 비싸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실 거라면 Half fare travelcard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통신비:**

저는 Swype를 이용했고 월 20프랑 지불했습니다.

#### - 생활비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한다면 한 끼에 20~40프랑 정도 들겠지만 Migros나 Coop, Denner, Lidl, Aldi에서 식자재를 산다면 비교적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제네바 근교인 프랑스 안느마스(Annemasse)로 장을 보러 갔는데 고기 등이 훨씬 저렴

합니다.

- 한달 평균 지출비용

여행 비용을 제외한다면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 5.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네바에는 스위스 현지인보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네바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제네바는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라고 느꼈습니다.

스위스는 확실히 한국에 비해 수업 분위기가 자유롭습니다. 교수님들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많이 알고 계셔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업 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풍부했고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HEG 학생이 많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파트타임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며 대학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목적으로 생각했던 저에게는 꽤 충격이었고 '나'라는 사람을 뒤돌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위스 현지 학생들과 다른 교환학생들 모두 정말 친절하고 좋은 친구들입니다. 교환학생 친구들과 다른 유럽 나라로 여행을 가고 콘서트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스위스 한 바퀴를 돌며 여행하는 로드트립도 했습니다.

저에게 스위스에서의 10개월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며 저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 기회를 주시고 지원해 주신 국제교류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6. 사진 (학교시설 위주의 사진을 5장 이상 첨부해주세요)









